

## 사료가인상 조짐의 2010년, 사료업계는 전전긍긍



손근남  
㈜유성사료 축우PM 농학박사

### G20 국제체제와 한국축산에 미치는 파장

지난 11월, 대한민국은 G20의 의장국으로 선진국 반에 편입되는 잔치를 요란뻑적지근하게 치렀다. 경제효과가 무려 450조라는 계산을 해내는 연구학자들도 있었다. 그 돈이면 국민 1인당 백만 원씩 연말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고, 상존하는 불안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다. G20 의장국으로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미 FTA의 양보가 있었고, 감추어 두었던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이라는 송곳 끝을 막판에 슬그머니 보여주고 그들은 떠났다. 이에 앞서 캐나다도 구제역 위험 통제국이라는 지위를 과시하며 위험부위까지 제한 없이 수입 개방할 것을 위풍당당하게 요구하였다.

2008년 가을, 서브프라임 모기지(프라임은 최상급이고, 서브프라임은 차상급이라는 말 뜻이지만, 실제로는 최하위 신용등급)에서 발단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원 달러 환율상승이라는 예측치 못한 사태를 야기하여 1,500원/달러까지 급상승하였고, 최근 1,100원 대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는 2007년 800원, 2008년 상반기 900원과 비교하면 25% 정도 높은 환율이다. 일본엔화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상승하여, 3년 사이에 무려 두 배가 올랐다. 그런데도 환율이 낮아 수출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율이 높으면 밀, 옥수수, 콩, 원당 등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가격은 물론 사료가격에 압박이 되며, 결국은 축산물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물가 오름의 불안요인이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



직 수출만이 경제의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안타까울 뿐이다.

### 국제 곡물가 급등의 주요원인

G20의 와중에 미국은 양적완화조치의 일환으로 6,000억 달러(7,000조 원)를 또 찍어내었다. 이것이 왜 소름끼치도록 무섭고 불안감을 엄습하게 하는가? 돈의 타고난 속성상 금리가 낮은 미국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달리는 홀러가고, 투기성 자본은 그 본성에 따라 단기간에 최대 수익을 내고자 그 멍잇돈의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총액 규모가 작은 외국 증시가 그 멍잇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요즈음은 천연자원과 곡물이 수익성 높은 사냥감이 되었다. 금, 희토류 광물, 석유, 곡물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수요가 조금이라도 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즈음은 국제 투기세력이 톡톡히 재미를 보면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자본의 가짜수요에 의해서 국제곡물가격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100년만의 가뭄으로 촉발된 국제소맥가격의 급등의 영향이 옥수, 콩 등으로 확산되었고, 여기에 미농무성이 옥수수 기말재고율이 19%로 1%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9월에 발표하자 곡물가 상승속도에 기름을 부었고, 옥수수 가격은 6월말 톤당 216달러에서 9월말 309달러로 3개월 사이에 무려 43%가 뛰었다. 내년 초부터 배합사료원가 상승이 불 보듯 예상되며, 축산물 생산원가에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와 사료업체에 대한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요곡물에 대한 공공비축제도의 도입방안의 조기실현이다. 미국 등으로 편중되어 있는 수입국을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과제이고, 논에 사료작물 대체 재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 2010년 축산 이슈를 보면...

#### 1) 연말연시 신종플루의 공포확산과 구제역 재차 발생

불과 1년여 전 우리나라 전역은 신종플루의 공포로 인하여 국군장병은 휴가외출이 전면 금지되었고, 축산관련 행사뿐 아니라 연말연시 회식자리까지 줄어들어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었다. 출하물량이 지연되면서 도축중량이 늘어나고 총 공급 가능물량이 쌓여가게 되었다.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로 자제해왔던 배합사료 가격 인상설이 연말연초에 뉴

스화 되었으나, 지난 1월 포천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설 명절 이후로 인상은 유보되었다. 다시 3월에 인상설이 마스크에 재점화되었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받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 4월에 인상이 무난히 되는 분위기로 돌아갔으나, 이 무렵 농협이 배합사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동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로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초부터 발만 동동 구르다가 연기사켜온 사료가격 문제는 4월 하순에 강화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결국 인상철회 되었으며, 구제역으로 인하여 사료업체는 방문컨설팅과 세미나 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로지 방역활동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사료가격 인상은 6월말을 시작으로 8월까지 업체별 경쟁여력과 정책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농협사료의 할인행사도 9월 들어 종료되었다.

## 2) 여름철 폭염과 장마전선 그리고 생산성 저하

벌써 기억에서 아물아물 하지만, 밀양은 십씨 40도의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하였고, 7, 8월에는 연이어 상륙하는 태풍까지 겹쳐 해를 보는 날이 드물었다. 후덥지근한 더위는 추석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중소가축의 생산성은 곧바로 영향이 왔고, 젖소의 유량 감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전국 우유생산량은 감소되었고, 분유재고도 안정권 이내로 줄어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위스트레스의 영향은 가을을 거쳐 초겨울까지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여름철 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비육우 성장지연은 추석출하를 넘기게 되었고, 추석이후의 소 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름철 누적된 반추위 불안정은 하반기 대사성질병의 증가는 물론 번식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저하된 또 하나의 이유는 벣짚 등 조사료의 품질문제이다. 2009년도 가을 추수철의 늦장마로 벣짚의 수분이 과다하게 되었고, 올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벣짚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다행히 금년도 수확한 벣짚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벣짚도 사료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반추위의 발효안정을 위한 측면에서 벣짚의 사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짚 정도로 흔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건물 1kg 당 벣짚의 가격은 300원 내외이고 배합사료 가격의 3/4 수준이다. 곱팡이가 슬고, 부패된 사료를 그냥 주지 않듯이, 바닥에 사료를 마구 퍼 버리지 않듯이, 비가 맞는 곳에 사료를 두지 않듯이, 벣짚도 대우를 받아야만 그것을 먹은 소도 주인에게 보답을 할 것이다.



### 3) 험난한 육우자조금의 길

자조금이란 일종의 세금이다. 다른 점은 일반세금은 정부에서 거두어서 정부에서 나누어 준다. 슬병 잡은 사람이 따르는 그 양과 순서를 정할 권한을 갖고 있듯이 정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조금은 걷고 쓰는 것을 생산자단체에서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세금과 다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 세금은 적게 내고 대신 자조금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생산자의 권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진다. 10여년 이상 산고 끝에 이루어진 낙농자조금은 금년 초에 2기 대의원이 구성되었다. 자조금의 운영도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있어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유소비촉진에 기여를 하여, 상시적으로 골치거리였던 분유재고량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본다. 한우자조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육우자조금도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다른 가축분야와는 특수성이 있어서 갈 길이 험난한 것 같다. 육우 쇠고기의 생산공정상으로는 낙농의 후 공정이지만 소비단계에서는 한우쇠고기와 연계성이 더 강한 산업이며, 생산시설 및 사양관리기술 측면에서는 한우사육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산업이며 경쟁의 관계에 있다. 한우가격이 오르면 육우가격도 올라가고, 육우가격이 오르면 송아지 가격도 올라가는 운명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다. 앞으로의 육우의 주요 경쟁상대는 수입육이다. 수입육과 국내산 육우의 품질차별화가 생존의 관건이며, 이를 위하여 육우자조금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금년도 미산 소고기의 수입량은 1.5배정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 30개월 미만은 합의된 상태이고, 광우병 재발시에 수입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상륙할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미국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20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값을 더 주고서도 사주는 로컬푸드(제지방 농산물)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 지방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초록등을 입구에 달아주는(일반음식점은 홍등) 녹색제등운동이 생산자 단체와 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산 육우가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우는 김치처럼 품종 자체가 브랜드이지만 육우는 품종이 수입육과 같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 육우 자조금에 동참하는 육우농가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개편 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유통과 식품분야로 이동될 것이며, 농업, 농촌, 농민, 농산물의 문제는 이

제 농민 스스로 함께 살길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자동차 한 대 수출이 농민 2가구 5인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경제논리 앞에 주눅 들어있는 요즈음, 광우병과 멜라민 등 예측불허의 공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단백질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해야하는 축산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생존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자기가 속한 산업분야의 솜단지를 키우고 지키는 자조 활동에도 힘을 보태야만 할 것이다.

**낙농육우인의 8,000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있다.**

낙농인 7,000명, 육우인 1,000명과 사료업계 종사자, 유통계와 유통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축산 밥을 먹는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과거 WTO, IMF, 구제역, 광우병 파동과 세계금융대란과 국제곡물가 급등의 격랑을 헤쳐 온 지혜와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 축산인들은 5년 후에는 이 땅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제 여러 나라들과의 힘겨운 FTA 협상과 쇠고기 연령제한완화에 맞서는 생존권사수의 대열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축산관련인들은 지원사격을 일제히 하여 공동의 밥술을 지켜내야만 한다. 특히 사료회사는 사료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각종 비용의 절감을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해야만 한다. 생산농장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의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정착되어 가는 생산 이력제의 보다 정확한 실천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며, 공동의 밥그릇을 지켜내는데 동참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기 밥그릇 채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80%의 동료 양축기들이 축산업을 떠나

게 한 것은 외국의 축산농민과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며, 결국은 이웃과의 경쟁에서 뒤졌기 때문임을 상기하고, 생산비 절감요인을 찾아내고, 생산 효율과 경영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품질 좋고 안심하고 먹을 있는 쇠고기와 우유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식량위기시대의 백척간두에 내몰리는 현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농민, 농축업의 문제만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경제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와 주권이 국방과 외교문제만큼 중차대한 국정으로 승격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

